
1960년대 안수길 문학사상과 식민, 포스트식민, 탈식민 역사 쓰기 - 『생각하는 갈대』, 『백야』, 『북간도』 4,5 부를 중심으로*

윤영실 (숭실대학교, 조교수)

〈목 차〉

- I. 1960년대와 안수길
- II. 4.19와 5.16, '자유'와 '반공' 사이의 『생각하는 갈대』
- III. 「여적」에서 「분지」까지, 필화사건들을 통한 비판적 자유주의의 심화
- IV. 『백야』와 『북간도』 4, 5부: 식민/포스트식민 시대의 주권권력과 인민
- V. 나가며 - 민주주의와 인민주권의 역설을 넘어서

국문초록

본고는 안수길의 문학사상을 시대적 맥락 속에서 분석함으로써, 1960년대 초중반의 급진적 단편들과 장편소설들을 잇는 통합적인 해석을 제시하고자 했다. 2장은 4.19에서 5.16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급변 속에서 쓰인 『생각하는 갈대』를 중심으로 작가가 자유와 반공, 독재적 권력에 대한 비판과 인민의 내전상태에 대한 공포 사이에서 주저하고 있었음을 분석했다. 2장은 안수길이 일련의 필화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면서 비판적 자유주의를 심화시켰으며, 저항적 문학론과 '망향의식'을 심화시켰음을 살펴보았다. 4장은 『백야』와 『북간도』 4,5부를 겹쳐봄으로써, 식민과 포스트식민 시대를 잇는 작가의 역사인식과 인민의 정치적 주체화를 통해 진정한 탈식민과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는 정치적 전망을 살펴보았다.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 A01042723).

주제어: 안수길, 주권권력, 인민주권, 내전, 민주주의, 4.19, 분지 필화사건, 『북간도』, 『백야』, 『생각하는 길대』

1. 1960년대와 안수길

2011년 안수길 탄생 100주년을 맞아 총 16권의 『안수길전집』¹⁾이 출간되었다. 첫 두권은 중단편, 3권~15권은 장편, 16권은 수필과 단편 등을 모았고, 한 권이 1000 페이지에 달하는 경우도 수두룩한, 방대한 분량이다. 안수길은 식민지기에 이미 굵직한 장편과 상당수의 단편들을 발표해서 해방 이후에는 증견작가였고, 타계시까지 일생 대부분을 전업작가로서 오롯이 글을 써낸 보기 드문 경력을 지녔다. 그의 소설들은 『성천강』, 『통로』처럼 근대 초기를 그린 것부터 1960-70년대의 세태소설까지, 한국 근현대사의 거의 모든 국면을 작가의 직접 체험이나 부모 세대의 생생한 전승을 바탕으로 소설화했기에 역사적·풍속적 가치 또한 높다. 세대별로, 때로는 10년 단위로 분절되어 왔던 한국문학사에서, 식민지와 만주 이주 경험, 분단과 한국전쟁, 4.19와 군사정권까지 한국근현대사 100년을 아우르는 시선을 갖춘 안수길 같은 작가는 드물고 귀하하다. 그러나 정작 선행연구는 안수길 소설의 방대함과 면면한 역사성을 조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단편적이다. 단행본 분량으로는 김윤식의 『안수길 연구』²⁾를 비롯한 몇 편이 있으나, 이조차 『북간도』를 비롯한 만주서사들과 소설 일부만을 다루었을 뿐이다. 만주소설들에 압도적으로 치우쳐 왔던 선행연구들은 작가가 해방후 남한에서 매 시기의 정치, 사회적 현실들과 교섭하며 써내려갔던 많은 작품들을 망각 속에 묻어 두었다.

다행히도 최근 안수길의 1950, 60년대 소설들에 대한 뛰어난 연구들

- 1) 안수길, 『안수길전집』 1-16, 글누림출판사, 2011. 본고는 이 전집에서 안수길의 글을 인용할 경우 짧게 『전집』 *권, *쪽만 밝히도록 한다.
- 2) 김윤식, 『안수길연구』, 정음사, 1986; 최경호, 『안수길 연구: 실향시대의 민족문화』, 형설, 1994; 김영희, 『안수길 소설의 근대성 연구』, 국학자료원, 2009.

이 나오면서, 연구의 시야도 점차 확장되고 있다. 한수영은 안수길의 만주서사들 이외에 1950, 60년대 단편들의 '망명의식'을 선구적으로 조명했다. 김미란은 60년대 단편인 「IRAQ에서 온 편지」나 「동태찌개의 맛」이 월북자 가족을 향한 국가의 감시와 폭력을 비판했다고 분석했다. 임유경은 1960년대 문학의 불온성을 폭넓게 다루면서, 안수길의 60년대 단편들이 '명량'을 강제하는 통치권력에 저항하는 양상을 규명했다.³⁾ 한편 강용훈은 안수길의 만주서사와 1960년대 이후 사회비판적 단편소설들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로 『백야』와 『흔들리는 갈대』 같은 1960년대 신문연재 소설에 주목했다. 특히 그는 『백야』가 한국전쟁과 4.19를 배경으로 '시민권'의 통치메커니즘 및 법과 주권권력의 폭력성을 그려냈다고 분석하고, 이러한 작가의 시선이 『북간도』의 만주 체험과 이어지고 있음을 규명함으로써, 두 텍스트의 겹쳐 읽기를 시도한 바 있다. 김주리 역시 『백야』에서 주권 권력의 폭력과 이에 순응하거나 저항하는 남성주체의 내면을 읽어냈다.⁴⁾

이상의 연구들은 안수길의 1960년대 소설들에서 주권권력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을 읽어낸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런데 주로 안수길의 특정 텍스트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 안수길 문학사상의 통시적 흐름이나 시대적 맥락은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1960년대 소설의 급진성에 대한 분석이 같은 시기 창작된 『북간도』 분석까지 이어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 『북간도』를 창작시점인 1950, 60년대

3) 한수영, 「내부 망명자의 고독: 안수길 후기소설에 나타난 '망명의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61, 한국문화회, 2012, 263-302쪽; 김미란, 「1960년대 소설과 민족/국가 경계를 사유하는 법」, 『한국학논집』 51,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3, 179-215쪽; 임유경, 「불가능한 명량, 그 슬픔의 기원: 1960년대 안수길론」, 『현대문학의 연구』 49,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175-217쪽.

4) 강용훈, 「1960년대 초반 안수길 신문연재소설의 4.19 표상과 피난민의 시민권: 『생각하는 갈대』(1961-62)와 『백야』(1963-64)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2,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9, 35-68쪽; 강용훈, 「1960년대 안수길의 신문 연재소설과 4.19 혁명 전후 서울의 문화적 재현 양상」, 『어문논집』 96, 민족어문학회, 141-174쪽, 2022; 김주리, 「4.19의 세대론과 안수길 소설 속 예외상태의 주체: 『백야』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76, 한국문학연구학회, 2022.

의 문화정치와 연결시켜 논할 경우 주로 작가가 해방후 남한사회의 민족주의나 반공주의를 『북간도』의 서사시간에 투사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었다.⁵⁾ 1960년대 안수길 소설의 급진성에 주목한 연구들조차 같은 시기 창작된 『북간도』 4, 5부에 대한 평가는 유독 박했다.⁶⁾ 그러나 『북간도』는 재만조선인이라는 이주민족의 경험에 천착함으로써 주권권력들의 폭력성을 밀도 있게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1960년대 단편 및 『백야』의 주제의식과 상통한다. 나아가 식민지기 재만조선인 소설들부터 말년의 ‘망향’의 사상까지 아우르는 작가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이 『북간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성취되어 있다.⁷⁾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1960년대 초중반 단편들과 장편들을 아우르는 총체적 이해를 얻기 위해 4.19부터 5.16까지, 그리고 일련의 필화사건을 거쳐 분지재판까지, 작가가 당대의 현실과 고향하고 교섭했던 시대적 맥락을 재구성해볼 것이다. 2장에서는 4.19에서 5.16까지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쓰인 『생각하는 갈대』에서 작가가 ‘반공’과 ‘자유’의 가치,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과 인민의 내전상태에 대한 공포 사이에서 주저하는 양상을 규명한다. 3장에서는 『경향신문』 「여적」에서 「분지」까지 일련의 필화사건을 거치면서 작가가 자유=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넘어 비판적 자유주의를 심화시켜 갔음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이 시기의 대표작

- 5) 한기형, 「역사의 소설화와 리얼리즘: 안수길 장편소설 『북간도』 분석」, 『한국전후문학연구』, 조진상 편, 성균관대 출판부, 2003; 김종육, 「역사의 망각과 민족의 상상」, 『국제어문』 30, 국제어문학회, 2004; 이해영, 「일제 시기 간도 이주와 그 형상화의 두 양상: 안수길의 『북간도』와 리근전의 『고난의 년대』」, 『한국학연구』 21,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09, 7-32쪽; 이해영, 「안수길의 해방전후 ‘만주’ 서사에 나타난 민족의식: 타민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50, 한민족문화학회, 2015, 7-38쪽 등.
- 6) 예컨대, 한수영은 이주민족 내부의 시선에 간혀 있는 『북간도』의 한계가 60년대 단편들에서 극복되었다고 평가하며, 강용훈은 『백야』가 성취한 주권권력에 대한 비판이 『북간도』 3부에 구현되어 있으나 4, 5부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 7) 필자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안수길에 대한 다른 논문들을 통해 밝혀왔다. 윤영실, 「이민, 식민, 난민: 식민지기 재만조선인 농민과 ‘세계 안의 자리」, 『인문논총』 77,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20, 203-247쪽; 윤영실, 「이주민족 정체성의 산종과 안전의 정치적 아프리카 - 안수길의 『북간도』를 중심으로」, 『만주연구』 32, 만주학회, 2021, 223-260쪽; 윤영실, 「민족문화와 ‘망향’의 사상 사이에서 - 안수길의 마지막 창작집 『망명시인』(1976)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97, 국어국문학회, 2021, 185-222쪽.

인 『백야』와 『북간도』 4,5부의 시대, 주제, 상징 등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가를 고찰함으로써, 식민지기부터 포스트식민지기까지 한국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안수길 문학사상의 깊이와 넓이를 가늠하고, 그 안에 내재된 탈식민적, 민주주의적 사유의 급진성을 드러내고자 한다.⁸⁾

II. 4.19와 5.16, ‘자유’와 ‘반공’ 사이의 『생각하는 갈대』

안수길의 기나긴 창작 이력을 몇 시기로 나눈다면 4.19가 하나의 분절점이 될 수 있다. 안수길의 1960년대 단편들에서 “역사적 현실과 밀착된 주제의식”이나 “4.19가 가져다준 또 하나의 의식혁명”⁹⁾을 읽어내는 평가들은 일찍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막상 당대의 세태를 재현한 안수길의 1960년대 장편소설들에서 4.19는 희미한 뒷배경으로 머문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안수길이 4.19를 겪으며 이전보다 더 중년세대의 민족적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4.19와 청년의 의미를 부정하고 주변화시키는 정체성의 정치”¹⁰⁾로 기울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강용훈의 연구는 『백야』의 4.19 재현에 주목하여 주권권력의 폭력성과 마이너리티(월남전재민)의 ‘시민권’에 대한 작가 인식을 심도 깊게 분석하고 있다. 본고는 4.19 전후 안수길의 행보를 좀더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이처럼 상반된 평가를 불러온 모순적 양상이 작가가 4.19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심화시켜 가는 과정의 단계적 변화임을 규명하고자 한다.

안수길은 해방 후 남한에 정착하면서 정치와는 일정한 거리를 둔 채

-
- 8) 본고는 식민지의 정치적 독립에도 불구하고 인민의 주권과 민주주의가 온전히 실현되지 못한 채 식민지의 모순을 일정 정도 반복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post-colonial’을 ‘포스트식민’으로, 진정한 해방으로서의 decolonization을 ‘탈식민’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 9) 윤병로, 「〈특집 - 회갑문인기념〉 안수길의 문학」, 『월간문학』, 1971.8, 234쪽; 이광훈, 「안수길론」, 『목축기』, 범우사, 1976, 14쪽; 이런 평가를 이어받아 4.19의 맥락 속에서 안수길의 1960년대 소설들을 읽어낸 연구로는 임유경, 앞의 논문, 185-190쪽.
- 10) 이선미, 「4.19와 안수길의 연애소설」, 『전집』 7, 721쪽.

작가로서의 본업에 충실했지만, 4.19 전후에는 유독 현실 정치에 목소리를 높였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1959년 5월 이른바 「여적」 필화사건이다. 『경향신문』의 무기명 칼럼인 「여적」 필화사건은 주요한이 스스로 필자임을 밝혔으나 결국 『경향신문』 폐간까지 이어지면서 문화계에 던진 충격이 적지 않았다. 이때 안수길은 『경향신문』 폐간 철회를 촉구하는 문화자 33명의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¹¹⁾ 1960년 2월에는 <공명선거추진 전국위원회>의 300명 중 1인으로 참여했다. 문화계 인사로는 김팔봉, 박계주, 정비석, 조훈파, 이한직, 유치환, 정한숙, 조지훈, 박두진과 함께였다. 이 위원회의 발족 선언문은 “3인조, 9인조식 집단 공개 투표와 공산당의 흑백선거와 흡사한 리·동(理洞)별 투표함의 설치등 망국적 폭거가 감행”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전국민을 향해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쫓기”¹²⁾를 촉구하고 있다. 자유를 찾아 월남을 감행했던 안수길의 1950년대 소설은 주로 남한사회에서 월남전재민의 생존이나 뿌리내리기라는 문제에 천착했다. 그러나 4.19 직전 안수길은 자유당의 독재와 부패가 공산당과 다르지 않음을 비판하면서, 이승만 정권이 내세우는 체제 유지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와는 다른,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는 정치적 행보에 동참한 것이다.

4.19 직전의 문단 상황을 고려하면 문학자로서 안수길이 선 자리가 좀더 명확히 드러난다. 주지하듯 해방공간에서 문학인의 좌우 대립은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문학장의 대대적인 재편으로 이어졌다.¹³⁾ ‘반공’을 기치로 남한 정권과 결탁하면서 문단의 주도권을 쥔 쪽은 김동리, 조연현 등의 ‘문협정통파’였고, 이들이 내세운 문학론이 이른바 순수문학론이었다. 한편 1950년대 중반 예술원 파동을 계기로 <한국자유문학자협회>(이하 자유문협)가 <한국문학가협회>(이하 문협)와 대립하면서 결성되

11) 「文化人 33名 聲明 京鄕廢刊 撤回 促求」, 『동아일보』, 1959.5.8.

12) 「공개투표를 분쇄」, 『조선일보』, 1960.2.29

13) 1950년대 문학장의 구축과 재편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는 김준현, 『전후 문학장의 형성과 문예지』, 고려대 국문과 박사논문, 2008 참조. 『북간도』를 제외하고 1950, 60년대 안수길 문학이 오랫동안 문학사 연구에서 소외된 것은, 김준현의 지적처럼 이후의 문학사가 『현대문학』 중심으로 재구성되었던 것도 한 원인으로 짐작된다.

었다. 자유문협 기관지인 『자유문학』은 문협의 『현대문학』과 거리를 두면서 ‘저항’, ‘실천’ ‘행동주의 문학’을 표방했다. 안수길은 자유문협 창립(1955.6.12) 발기인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¹⁴⁾ 이듬해 장편 『화환』으로 자유문협 회원 합동출판기념회에 참가¹⁵⁾한 것을 시작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안수길은 특히 『자유문학』 신인추천제의 소설 부문 심사를 담당하면서 최인훈, 유현종, 남정현, 박용숙¹⁶⁾ 등을 등단시켰다. 추천제도란 특정한 문학적 지향성을 재생산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당연히 안수길의 문학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최인훈에 대한 추천사에서 드러나듯 안수길 문학론의 핵심은 ‘행동’에 대한 강조였다.¹⁷⁾ 안수길이 강조하는 행동은 문학자가 현실 정치에 직접 복무하는 것과는 달랐다. 1950년대 후반 자유당 정권과 결탁한 어용문학자들이 이른바 ‘만송족’¹⁸⁾으로 전락할 때, 안수길은 필화 사건을 비판하거나 공명 선거를 촉구하는 저항적 실천에 참여했다. 나아가 창작을 본연의 임무로 삼는 ‘문학’ 활동이 아닌, ‘문단’ 활동에 더 열심인 문학자들을 향해 은근한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¹⁹⁾

4.19 이전 자유당 정권 비판에 앞장섰던 안수길은 제2공화국에서 좀더 발언권이 커진 것처럼 보인다. ‘문협’이 이승만 정권과 결탁한 부패 어용

14) 「自由文學者協會 十二日創立總會」, 『동아일보』, 1955.6.11.

15) 「十三氏 合同出版記念會」, 『조선일보』, 1956.1.27.

16) 이들과 안수길이 단순히 문단의 인맥을 넘어 정신적 스승과 제자로서 지속적인 교류를 해왔음은 박용숙의 회고문에 잘 나타난다. “우리는 그 뒤에 한잔 술에 거나해지면 선생님의 집을 가리켜 우리를 정신의 성지라고 일컫기도 했다... 남정현, 최인훈, 그리고 나는 모두 선생의 추천을 받아 문단에 데뷔했으며 선생이 늘상 하시던 입버릇처럼, 우리 셋을 가리켜 ‘삼바가라스(삼총사)’라고 부르며 우리 셋이 나타날 때마다 만사를 제쳐 놓고 술상을 마련하실 정도로 선생님은 우리에게 끔찍한 사랑을 베풀었다.” 박용숙, 「기난 속에 꽃피운 산문정신」, 『전집』 16, 478쪽.

17) 안수길, 「小說薦後記」, 『자유문학』, 1959.10:1959.12. 『자유문학』의 지향성 속에서 최인훈의 초기 소설들을 살핀 연구로는 오태호, 「1950년대 『자유문학』의 지향과 지식인 소설의 상관성 고찰 - 최인훈의 「그레이그라부 전말기」와 「라울전」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40, 한국근대문학회, 2019, 75-104쪽.

18) 만송은 이기봉의 호로 당시 이승만의 정권 연장 기획에 동원되어 만송을 찬양하는 글을 썼던 어용문인들을 만송족이라고 일컫는다.

19) 「안수길 문학하는 것과 문단에 서식하는 것」, 『동아일보』, 1958.10.26.

단체로서 해체를 종용받을 때, 『경향신문』 폐간 철회를 촉구했던 문학자 33인은 문협과 대조적인 바람직한 사회참여 사례로 기억되었다.²⁰⁾ 그는 신문 칼럼란에 제2공화국 정권을 향해 문화정책을 제언하는 글들을 싣기도 했다. 다수결의 횡포를 경계하면서 문화 발전에 힘써 달라는 당부이거나, 모든 문화 정책을 민주적인 기반 위에서 강력하게 추진해달라는 원론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는 자신이 “글 쓰는 것을 본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를 잘 모”르는 작가임을 전제하면서, “정치에 신물이 나”면서도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한 시민으로서 발화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²¹⁾ 그러나 때로는 문학자로서 좀더 구체적인 문화정책들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었다. 오랫동안 국제펜클럽 한국지부 활동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문교부에서 문화부를 독립시켜 위상을 강화하라거나, 한국문학의 국제교류와 해외 번역에 힘쓸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²²⁾ 이런 활동들 때문인지 안수길은 1961년 5월 “문화정책에 걸친 광범위한 자문기관”으로 설치된 문화정책위원 22명 중 문학 분야에서 설창수, 백철, 최정희와 함께 내정되었다.²³⁾ 안수길의 생애에서 통치권력에 가장 근접한 시기였다. 그러나 곧바로 5.16 ‘혁명정부’가 들어섰기에 이 내정은 실제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한 듯하다. 오히려 제2공화국 당시 주변부로 물러나 있던 문협계 인사들이 재등장하면서 점차 문화계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이후 1962년 1월 우여곡절 끝에 문학단체들의 통합체인 <문인협회>가 탄생했다. 안수길 역시 문단의 원로로서 이사 등 요직을 두루 맡았지만,²⁴⁾ 박정희 정권과의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야성(野性)을 유지했다.

20) 「최고지성의 착란-문총 존속을 위한 발언의 해부」, 『경향신문』, 1960.5.10.

21) 안수길, 「정치에 인간을 반영」, 『동아일보』, 1960.8.2; 안수길, 「자신있는 문화정책을」, 『동아일보』, 1960.8.27;

22) 안수길, 「문화부의 독립」, 『조선일보』, 1960.8.8.

23) 「문화정책위원 22명 내정」, 『동아일보』, 1961.5.5.

24) 4.19 이후 어지럽게 분립한 문화 단체들의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예술문화 단체 백서」, 『조선일보』, 1961.3.19; 5.16 이후 정권에 의해 어느 정도 강제된 문학 단체들의 통합은 「부질없는 반목을 지양」, 『조선일보』, 1962.1.5. 한국문협, 자유문협, 전후문협 등의 제 단체들이 통합된 <문인협회>는 단체 명칭과 임원 선출로 갈등을 빚다가 우여곡절 끝에 탄생했다. 이때 이사장은 전영택, 부이사장은 김광섭, 김동리, 이희승이었

그렇다면 4.19에서 5.16까지의 이 격변은 안수길의 문학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었을까? 1964년과 1965년에 각기 4.19를 다룬 문학작품을 개괄한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기사들은, 시에 비해 소설은 아직 양과 질 양쪽 면에서 4.19를 제대로 형상화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혁명의 계승을 표방한 박정희 군사정권이 점차 억압적 본색을 드러내고 있던 시기였기에, 4.19 소설의 부진에는 어느 정도 강요된 침묵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사들은 무엇보다 소설들이 “4.19의 역사적 정의”를 “뚜렷이 부각”하지 못한 점을 한계로 지적하는데, 이는 작가들 개인의 역량보다는 “4.19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²⁵⁾ 까닭이다. 4.19를 혁명적 봉기라는 시적 순간을 넘어 굴곡진 한국근대사의 한 계기로 서사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에 대한 깊고 넓은 안목이 요청되었다.

안수길 자신도 이 점을 민감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그가 1962년 작단의 부진을 평가하면서 언급했듯, “소설이란 생활을 떠나선 이룩될 수 없고 생활이란 현실 그것이므로 현실이 안정되지 않을 때 소설도 안정된 것이 생산될 수 없다. 4.19에서 5.16까지 “한 현실이 작가의 머리속에서 재구성될 시간의 여유가 없이 다른 현실이 들이닥친”²⁶⁾ 급변의 시기에, 작가는 4.19의 역사를 음미하여 서사화할 여유를 갖지 못했다. 이 점은 4.19 직후에 거의 실시간으로 당대를 반영한 『생각하는 갈대』(『서울신문』 1961.1-1962.6.1)²⁷⁾가 보여주는 방향상실에서 잘 드러난다. 소설은 물이 “낮은 데로” 흐르듯 서로 진짜 사랑을 찾아 짝을 바꾸는 다섯 젊은이(유재현, 오두익, 최근식, 허문옥, 주정주)와 사랑에 흔들리면서도 교육과 가족 재건을 앞세운 중년 인물들(성춘호, 재혼한 부인 정인순, 바마담 오선애)의 연애서사를 기본틀로 삼고 있다. 선행연구들도 주목했듯, 소설은 “4.19 이후의 혼란”(14), “다방에서 판을 치는 일본 가곡”(22), “4.19의

고, 안수길은 한국문인협회 이사로 피선되었다.

25) 최일수, 「紙背에 스민 그날의 증언 - 문학작품에 나타난 4.19」, 『조선일보』, 1964.4.19; 「4.19와 文學作品」, 『경향신문』, 1965.4.19.

26) 안수길, 「62년 상반기의 소설 저조 부진의 연속」, 『동아일보』, 1962.7.6.

27) 『생각하는 갈대』의 인용은 『전집』 7권, 본문에 쪽수만 표시한다.

피비린내 나는 사태”와 “그 뒤를 이은 데모, 충돌, 농성, 의사당, 법원, 신문사 침입”(34) 같은 폭력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다. 그러나 작가 자신의 사회참여 행보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이 소설이 4.19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고시공부에 몰두하느라 4.19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최근식이 애인인 주정주의 비난에 자괴감을 갖거나, 시험을 며칠 앞두고 각성제의 남용으로 온몸이 마비된 채 누워있는 최근식에게 어머니 정인순 여사가 “4.19때에 죽었다면 값있는 죽음이나 될 걸”(46)이라고 한탄하는 장면은, 작품 내에서 4.19의 정당성이 의심할 바 없이 전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마비에서 풀린 최근식이 고시공부를 접고 인생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다시 모색하게 된 계기 역시 4.19였다. 그런 점에서 소설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 4.19를 가장 진지하게 자기 삶의 문제로 끌어안고 있는 것이 근식이었다.

- ① 4.19 1주년을 앞에 둔 사회는 사상적으로 현실적으로 몹시도 소란했다. 최근식이 같이 고등고시를 목표로 몇 해를 책 속에 파묻혀 왔었던 젊은 사람, 온실 속에서 키워진 화초 밖에 안되는 젊은이로서는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무얼 해야 되나?’ ‘어디다가 정열을 부어야 되나?’ 최근식이 고민하는 것은 바로 이점이였다. (339)
- ② 각성제 사건으로 고시를 단념한 근식은 처음 공허한 마음에서 그 문제에 관심을 가져 보려고 해봤다. 그러나 그 방면 학생들의 주장과 방법을 들여보면 그건 기분에 들뜬 일밖에 되지 못했다. 더구나 근식은 사상 때문에 남편을 빼앗기고 절치부심하는 어머니의 아들이란 자신의 처지가 얼른 반성되었다. 그래서 근식은 머리를 자주 흔들었다. (345)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식은 초반의 각성제 사건 이후 서사에서 거의 사라지고, 애인이었던 정주를 다른 남성(유재현)에게 빼앗기며, 끝내 뚜렷한 삶의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유학을 앞두고 군대에 가는 것으로 그려진다. 결국 『생각하는 갈대』에서 4.19 형상화의 실패는 근식이라는 인물의 실패와 맞물린다. 인용문에서 두 가지 이유를 추측해볼 수 있다. 첫 번째 ①)는 문자 그대로의 방향상실이다. 근식의 방향 상실은 부패한 자유당

독재를 무너뜨리는 데는 쉽게 일치했으나, ‘혁명’ 이후 한국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사분오열되었던 4.19 이후의 혼란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두 번째(②)는 근식의 어머니 정인순이 해방후 좌익사상에 빠진 남편에게 버림받은 개인사와 관련된다. 여기에는 사회의 일반적인 방향상실에 더해 작가 자신이 해방후 북한에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 말기 만주에서 경험했던 공산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 공산주의 사상이 삶을 압도하고, 이념이 사람들을 갈라놓고, 심지어 동족을 죽이게 만드는 일들을 목도하며 월남을 택했던 안수길이다. 그런 점에서 ‘반공’은 단지 남한 정권의 이데올로기일 뿐 아니라 작가 자신에게도 내면화된 신념이었다. 나아가 4.19 이후 “혁신 계열의 반공법 반대 시위”와 “이에 반대하는 용공분자 타도의 시위행진”(309)이 맞부딪치는 거리의 혼란을 보며, 작가는 좌우로 분열하여 내전상태에 빠졌던 해방공간을 떠올렸을 터다.

성춘호는 어디까지나 자유를 찾아 남하한 사람이다. 아내에 대한 감정은 휴전선을 넘어 자유롭고 아름답게 북녘 하늘로 떠나가고 있었으나 이성은 그의 앞에 남북교류 같은 이론이나 실천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했다. 만약 이북의 아내 김선애가 그쪽에 열성을 기울이는 여성이라면 성춘호의 이성은 벌써 그 아내를 마음속에 내쫓고 말았을 것이다.”(386)

작중 성춘호가 북에 두고 온 아내를 그리워하면서도 사랑보다 ‘반공’을 앞세웠던 심리는 자유와 반공 사이에서 갈등하는 작가 자신의 내면을 반영한다. 삶을 압도하는 공산주의 사상의 폭력성을 비판하며 ‘자유’를 옹호했던 작가이지만, 사랑하는 아내마저 마음속에서 내쫓게 만드는 ‘반공’이란 그 자체가 삶을 압도하는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임을 적어도 이 시기의 안수길은 깨닫지 못했던 것 같다. 그렇기에 소설은 4.19 이후의 혼란에 대한 고뇌를 드러낸 채 5.16 직전의 시간대에서 끝나고 만다. 4.19로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았던 최근식은 ‘생각하는 갈대’처럼 방향만 거듭하다가 이야기의 무대에서 퇴장해버렸다. 당시 『사상계』 그룹을 비롯한

많은 진보인사들이 그러했듯, 안수길도 5.16에 일말의 기대를 걸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III. 「여적」에서 「분지」까지, 필화사건들을 통한 비판적 자유주의의 심화

안수길이 4.19를 다시 본격적으로 서사화한 것은 『백야』에서였다. 『백야』는 4.19 혁명정신의 계승을 자처했던 박정희 정권이 폭압적 성격을 드러냈던 시기에 연재되었다. 선행연구들이 규명한 것처럼, 『백야』의 가장 큰 성취는 주권권력의 폭력성에 대한 인식과 소설적 형상화다. 이에 더해 해방 직후부터 4.19 당일까지를 그리고 있는 『백야』는 한국현대사에서 4.19의 ‘역사적 의의’를 자리매김하려는 시도로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인식적 성취는 두 가지 방향의 영향에서 기인했다. 하나는 안수길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필화사건들에 연루되면서, ‘반공=자유’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비판적 자유주의를 심화시켜 갔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북간도』 창작을 통해 한국근현대의 역사적 경험을 응시하면서 식민지기와 포스트 식민지기를 아우르는 역사인식의 폭과 깊이를 확장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번 절에서는 먼저 안수길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던 필화사건들에 대해 살펴본다.

언론수호의 불길은 그냥 타고르고 있었다. 8일에는 벌써부터 서명을 받으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문학인 33인의 언론수호, 『경향신문』 폐간 취소를 요구하는 강력한 성명서가 발표했다. “글 쓰는 사람들까지?” “그거야 당연하지!” “그렇겠지. 언론의 자유 없이, 창작의 자유가 없을 테니까... 그러나 문인이 정치에?” “정치운동에 휩쓸려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한 신문이나 한 정당을 위해서가 아니야. 문인 자신들의 기본권을 옹호하라는 부르짖음이야...” 『백야』, 651²⁸⁾

28) 『백야』는 『북간도』 3부를 출간 후 『조선일보』에 1963.9.1~1964.12.31까지 연재되었고, 『안수길전집』 9권에 수록되었다. 본문의 인용은 『전집』 9권의 쪽수만 밝힌다.

작가는 『백야』에서 4.19 이전의 정치적 소요들을 꼼꼼히 기록하면서, 발화주체가 불분명한 동네 사람들의 대화 형식으로 『경향신문』 폐간에 반대하는 문학인 33인의 성명서를 언급한다. 앞 절에서 언급했듯, 이는 안수길이 4.19 전후의 정국에서 뚜렷한 정치적 목소리를 낸 첫 번째 사건이었다. 인용문은 이러한 정치적 목소리가 ‘정치운동’이나 특정 정당을 옹호하는 현실 정치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언론과 창작의 자유 수호는 “문인 자신들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부르짖음”이라는 점에서 ‘생활’의 문제요, 추상적인 이데올로기나 권력을 둘러싼 정쟁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작가로서의 안수길은 특히 글쓰기의 자유를 제약하는 ‘필화’ 사건에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했다. 『백야』는 「여적」 사건 이외에도 4.19를 향해 가는 이승만 정권 하의 필화사건들을 꼼꼼히 기록해 놓았다. 사건을 발생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1955년 3월 15일. 동아일보 괴뢰 오식 정간사건 (648)
- ② 1958년 8월.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²⁹⁾(『사상계』 8월호)의 필자, 종교가인 함석헌: 「도박자의 정의」 『코리아 타임스』의 장수영; 「두 개 사단 감축 준비」를 취재, 기사화한 최원각. 그들은 현행보안법과 이적죄의 혐의로 각각 구속되었다. (597)
- ③ 1959년 2월 4일. 『경향신문』 무기명 칼럼 「여적」 필화사건. (645-646)
- ④ 1959년 4월 30일. 『경향신문』의 「여적」을 포함한 5건 기사를 허위사실 보도, 폭동 선동, 간첩도주 방조 등의 혐의로 군정법령 88호에 근거해 폐간 명령 (647-648)

안수길이 4.19 정국에서 예외적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높인 데는 이승만 정권의 여러 실정, 그중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권의 부당성에 대한 비판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박정희 군사정권에서 ‘필화’는 소설 창작의 자유마저 움츠리는 더 단단한 굴레로 되돌아왔다. 이미 5.16 직후 혁명정부 하에서 『민족일보』 관계자들이 반공법 7조 “북한을 찬양고

29) 소설에 기재된 제목에 약간의 오류가 있다. 원글은 함석헌,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6.25 싸움이 주는 역사적 교훈」, 『사상계』 1958.8.

무한 혐의"로 구속되어 군사재판을 받았고, 조용수의 사형 등 12명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다.³⁰⁾ 당시 국제펜클럽 일본지부나 국제신문인협회(IPI) 등에서 감형을 호소하는 탄원 및 성명이 있었지만,³¹⁾ 국내에서는 별다른 저항의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다.³²⁾ 계엄령(1961.5.16.~1962.12.5)이라는 '예외상태' 하에서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폭력 앞에 모두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박정희 정권에서의 필화가 안수길에게 좀더 직접적으로 다가온 계기는 용정 출신으로 안수길과도 친했던 박계주의 『여수』 필화사건이었다. 박계주가 1961년 『동아일보』에 연재하던 소설 『여수』 중에서 “송진우의 의견대로 오 년 간의 국제신탁통치를 받았던들 오년 뒤엔 국제기구인 UN에 의해 오스트리아처럼 통일되었을 것”³³⁾이라고 한 내용이 문제가 되었다. 『여수』 연재의 갑작스러운 중단을 알린 『동아일보』 「사고(社告)」는 소설이 “본사의 견해와 현저히 상이”³⁴⁾하다는 이유를 밝혔지만, 그 이전에 이미 박계주의 투옥과 군정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임순에 따르면, 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의 외곽 친위부대로 기능하게 될 한국국민협회의 탄생과 더불어 적어도 문학계의 자기 보신과 연관된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제공했다.”³⁵⁾ 이미 생계가 곤란한 처지였던 박계주는 이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1963년 연탄가스 중독으로 기억상실에 걸린 채 연명하다가 1966년 타계했다. 황금찬은 박계주가 기억상실인 채로 연명하던

30) 이 사건에서 실제 사형당한 이는 조용수 한 명이었는데, 그는 2008년 1월 16일 서울 중앙지법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명예를 회복했다.

31) 「日서 署名運動 民族日報事件被告 死刑言渡에 呼訴文」, 『동아일보』, 1961.9.3; 「民族日報事件 再考도록 呼訴」, 『조선일보』, 1961.9.3; 「세 名의 被告 살려 言論自由 보이라」, 『동아일보』, 1961.10.11; 「民族日報 세 被告에 IPI서 寬容呼訴」, 『동아일보』, 1961.10.28 등.

32) 오히려 혁명재판소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칭송하는 논조(「革裁」에 對한 國民의 信賴感」, 『경향신문』, 1961.9.17)도 보인다. 완곡하게 선처를 호소하는 정도의 사실로는 「民族日報事件 上訴審判決을 보고」, 『조선일보』, 1961.11.1.

33) 박계주, 『여수』 170회, 『동아일보』, 1961.11.28.

34) 「그간 本紙 朝刊 四面에 連載해오던 朴啓周氏...」, 『동아일보』, 1961.11.29.

35) 공임순, 「박종화와 김동리의 자리, “반탁운동의 후예들”과 한국의 우파 문단」, 『사학연구』 121, 한국사학회, 2016, 46쪽; 41-79쪽.

시기 안수길과 만났던 짧은 일화를 전한다.

얼마 후에 박계주가 부인의 손을 잡고 다방으로 들어섰다. 모두들 그를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것은 그에게 아는 체를 해도 그가 알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중략)...

“박 형 나야. 나 안수길이야. 알아보겠어. 자 똑바로 보란 말이야.”

박계주는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더니, 피식 웃으며 말한다.

“안수길 형을 보자고 했지 누가 당신을 불렀어. 당신은 저리 가란 말이야. 그리고 안 형을 좀 불러주시오. 나는 안 형만 만나면 곧 간단 말이야.” 그의 말은 초점이 흐려져 있었다. 한참이나 앉아 있던 안수길이 눈물을 흘리며 내 앞으로 왔다. 그는 눈물을 막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³⁶⁾

안수길이 흘린 눈물은 단순히 친우의 개인적 불행에 대한 비탄만은 아니었다. 그는 박계주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에서 “「여수」 사건 이후의 거듭되는 불행”을 상기시키며, 이를 “한국작가의 길”³⁷⁾로 일반화한다. 안수길과 함흥 동향 출신인 월남작가 박연희 역시 박계주의 죽음에 대해 “이 땅에서 문학을 한다는 일은 어떤 순교자의 일방적인 희생 같은 행동”³⁸⁾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우회적으로나마 박계주의 죽음을 야기한 필화사건과 창작의 자유에 대한 권력의 탄압을 비판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내력을 고려할 때 안수길이 남정현의 ‘분지사건’에 특별변호인으로 나선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남정현은 안수길이 『자유문학』 신인 추천제도로 등단시키고, 1961년 동인문학상 수상자로 강력히 천거할 만큼 아끼는 제자였다. 그러나 법정에서의 변론 요지는 이런 개인적 친분을 넘어서 있다. 우선 사건의 개요를 조금 더 살펴보자. 남정현이 『현대문학』에 단편소설 「분지」를 게재한 것은 1965년 3월이었다. 같은 해 5월 북한노동당 기관지 『조국통일』에 「분지」가 전재된 것이 빌미가 되어 중앙정보부가 남정현을 반공법위반 이적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일은

36) 황금찬, 「마음에 남아 있는 사람들」, 『선데이서울』, 1985 (『전집』 16, 489쪽)

37) 안수길, 「박계주 형을 포함」, 『부산일보』, 1966.4.12 (『전집』 16, 223쪽. 『전집』에는 『부산일보』 게재 날짜가 1964년으로 잘못 기재되었기에 바로잡음)

38) 박연희, 「고 박계주 형의 영전에」, 『동아일보』, 1966.4.9.

1965년 7월 7일, 이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은 7월 10일³⁹⁾이었다. 마침 그 전날인 7월 9일 재경문학인 80여 명이 한일조약에 반대하며 “굴욕과 재침해와 실질적인 예측을 가져오는 한일조약을 즉각 파기”⁴⁰⁾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안수길도 여기 참여했다. 1965년은 한일협정 반대투쟁을 비롯해 월남파병, 군 내부의 반정부 쿠데타 음모 등으로 박정희 집권 이후 가장 거센 역풍이 불던 때였고, 학자와 문인 등의 반정부적 저항도 활발했다.⁴¹⁾ 「분지」 필화 사건은 이처럼 수 세에 몰린 정권이 시민사회를 향해 보내는 일종의 경고장이기도 했을 터다.

그러나 1961년의 『민족일보』나 『여수』 필화사건 때와는 달리 시민사회의 저항도 컸다. 언론에서는 남정현 구속을 알리는 기사와 함께 즉각적으로 그 부당함을 알리는 글들이 쏟아졌다. 『조선일보』 칼럼 「만물상」에서는, 남한사회 및 미국 비판이 북한의 선전에 활용되었다는 점이 「분지」사건의 쟁점이었던 만큼, 북한과는 다른 남한의 ‘자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분지」가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우방인 미국의 정책을 공박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민주대한의 작가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과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조선일보』에 실린 기고문에서 백낙청은 “한국과 같은 후진사회에서 문학이 넓은 기반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중의 저항을 대변하는”⁴²⁾ 것이라는 점에서 당국의 조치를 비판했다. 심지어 보수적인 문협에서조차 박종화, 김동리, 김광섭, 모윤숙 등 의장단을 포함한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남정현의 구속이 부당함을 지적했다.⁴³⁾ “작가는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창작을 통해 때로는 조국의 뺨을 칠 수도 있다”라는 원론적인 주장과 함께,

39) 「작가 남정현씨 구속」, 『동아일보』, 1965.7.10.

40) 「서명한 문인들」, 『동아일보』, 1965.7.9

41) 한승헌, 「남정현의 필화, 분지 사건」, 『남정현문학전집 3: 연구자료 및 논문』, 국학자료원, 2002, 278쪽.

42) 백낙청, 「저항문학의 전망」, 『조선일보』, 1965.7.13.

43) 「조국 사랑하기에 조국 뺨칠 수 있다 - 작가 남정현씨 구속에 문인협서 부당성 지적」, 『경향신문』, 1965.7.14.

북한에 이용당했다는 점만으로 작가를 처벌할 경우 창작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리라는 논리였다. 이처럼 저항이 폭넓게 일어난 때문인지 긴급 구속되었던 남정현은 일단 석방되었지만, 1년이 지난 1966년 7월 12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다.⁴⁴⁾ 이때부터 다시 거의 1년 간에 걸쳐 재판이 진행되었고, 1967년 6월 28일 유죄판결과 징역 6개월, 자격 정지 6개월에 “근신과 개전의 정”을 참작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⁴⁵⁾

남정현의 구속부터 판결까지 2년의 기간 동안 안수길은 적극적인 지원 활동에 나섰다. 국제펜클럽을 통해 진정서를 보내고,⁴⁶⁾ 1967년 5월 24일 재판에 특별번호인으로 출석해 변론⁴⁷⁾을 펼치기도 했다. 선행연구들이 주목한 바 있는, 주권권력의 폭력성을 비판한 문제적인 단편들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쓰였다. 「IRAQ에서 온 불온문서」(1964)에서 소설가 남진 석은 어느 날 갑자기 이라크에서 보내온 김일성 사진이 인쇄된 불온문서를 받고, 한국전쟁 이전과 자유당정권 시절 이런 불온문서를 보내 정적을 뒀에 빠트리곤 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공포스러워 한다. 마치 「분지」사건을 예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단편은, 생사여탈권을 쥐 주권권력의 폭력성이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를 위해 내부의 ‘적’을 규정하고, 사상을 검열하고, ‘간첩’과 ‘이적행위’와 ‘불온’함을 색출하는 ‘치안’(police)을 통해 평상시에도 작동함을 잘 보여준다. 「효수(梟首)」(1965)의 ‘나’는 만주국 시절 일본군이 중국인들의 목을 베어 전시해놓은 모습을 보고, 한때 친하게 지냈으나 정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떨어져 버린 중국인 주동산부와 왕선생을 떠올리며 씁쓸해한다. 소설은 주권권력이 권력에 저항하는 자들을 죽이고 전시함으로써 위세를 과시하고 여타 신민을 복속시키는 폭력적 메커니즘을 드러낸다. 또한 동지와 적을 가르는 주권권력의 ‘결정’에 따라 개개인들은 언제든 친구와 이웃에서 서로를 죽여야 할 적으로 내몰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뺨매입은 양복바지」(1966)는 봉건시대의 공개처

44) 「불구속기소」, 『동아일보』, 1966.7.12.

45) 「남정현 피고에 선고유예」, 『동아일보』, 1967.6.28.

46) 「남정현씨 기소에 펜클럽서 진정」, 『경향신문』, 1966.8.6.

47) 「안수길씨 특별변론 요지-분지는 무죄다」, 『동아일보』, 1967.5.25.

형인 회슬레 장면과 만주에서 일본군의 중국인 효수, 그리고 4.19 시위대를 향한 경찰의 발포라는 세 장면을 나란히 병치함으로써, ‘죽게 하는’(make die) 주권권력의 메커니즘이 전근대 왕정과 근대 민주정, 식민지 시대와 포스트식민 시대에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섬뜩하게 드러낸다.

『백야』에서 이미 그 단초를 보인 이러한 사유들은, ‘분지사건’을 계기로 더욱 심화되었다. 필화사건은 무엇보다 안수길의 ‘반공=자유’라는 좁은 틀을 깨고 비판적 자유주의와 문학의 저항성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점은 ‘분지사건’ 특별번호인으로 나선 안수길의 변론 취지에 잘 드러난다. 변론의 주요 취지는 소제목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뉜다. ①〈주제면에서〉 「분지」는 “민족의 자주정신을 강조”하기 위해 이민족인 미국을 내세운 것이지 반미 자체가 주제는 아니라는 점. ②〈기술면에서〉 이 소설이 사실주의가 아닌 고대소설의 수법에 따랐기에 과장되고 황당한 설정을 취한 점 ③〈문장상으로〉 어머니의 영전에 자신의 심정을 호소하는 1인칭 고백체 문체이기 때문에 감정과 어조가 과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이 세 가지가 「분지」라는 텍스트의 독특한 특성을 들어 변론한 것이라면 ④ 〈저항문학에 대해서〉라는 제목이 붙은 마지막 부분은 안수길 문학론의 핵심을 담고 있기에 주목할 만하다.

인간에게 완전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퍼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다. 생각은 향상을 뜻하는 것이다. 완벽을 지향하기 위한 사고인 것이다. 향상에 대한 사고는 왜 생기느냐? 현재 처하고 있는 처지에 불만에서 오는 것이다...(중략)... 독자가 어떤 작품을 감명깊게 읽는 것은 독자가 알지 못하게 불만으로 여기고 있던 것을 작가가 대신 타개해주는 때문이다. 이것이 문학의 저항성이다...(중략)... 이것은 인간이란 선한 것, 순수한 것, 거룩한 것을 지향하고 옹호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용허되지 않는 것은 오직 공산주의의 문학기론인 것이다. 당이 지시한 ‘테마’에 의해 작품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에서는 그 사회에 대한 문학의 저항성을 생각할 여지가 없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작가의 자의에 의한 문학의 저항성이 저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⁴⁸⁾

48) 안수길, 「문단의 하늘을 푸르게 하라」, 『남정현문학전집 3: 연구자료 및 논문』, 국학자

이전의 연구들은 「분지」와 「분지」에 대한 안수길의 변론 취지를 모두 민족주의의 과잉이라고 비판적으로 읽어왔다.⁴⁹⁾ 그런데 안수길의 변론서에서 민족주의는 「분지」의 주제를 언급하기 위해 잠깐 언급될 뿐, 안수길 자신의 문학론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저항문학에 관하여」에서 읽어낼 수 있는 안수길 문학론의 요체는, 모든 문학이 본성상 저항적이라는 점이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언제나 현재의 처지에 불만을 갖고, 더 나은 것, 완벽한 선이나 순수, 거룩함을 지향하고 옹호하는 본능을 지닌다. 문학은 작품을 통해 이러한 독자의 무의식적, 본능적 불만을 “대신 타개해주”기 때문에 독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요컨대, 문학은 언제 어디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타개하고 이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인간 본성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래적으로 저항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문학론으로부터 ‘자유’의 관념이 좀더 예리하게 가다듬어 질 수 있었다. ‘반공’이야말로 ‘자유’ 수호라고 주장하는 정권의 이데올로기에 맞서, 문학의 저항성이 추구하는 진정한 자유는 불완전한 현실 타개와 이상 추구에 열려 있는 상태로 정의될 수 있다. 공산주의와 ‘자유 대한민국’을 비교하면서 안수길이 마지막에 감춰둔 물음은 이런 것이리라. 현실을 비판할 수 없고 당이 지시한 테마에 따라서만 작품을 써야 하는 공산주의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다. 그런데 만약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자유가 없다면, 그 체제는 공산주의와 무엇이 다른가? 남한 체제 정당화의 이데올로기였던 ‘자유’는 이제 정권의 정당성을 심문하는 가치로 전유된다.

료원, 2002, 307쪽.

49) 김성수, 「1960년대 문학에 나타난 문화정책의 지배이념과 저항이념의 헤게모니 - 남정현 「분지」 필화사건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34, 민족문학사학회, 2007, 86-113쪽; 김진우, 「「분지」를 읽는 몇 가지 독법 - 남정현의 소설 「분지」와 1960년대 중반의 이데올로기들에 대하여」, 『상허학보』 31, 상허학회, 2011, 253-282쪽; 김철, 「한국문학이 그린 통의 얼굴 (1) - 「분지」와 「똥바다」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65, 상허학회, 2022, 449-517쪽. 이 글은 김건우가 김수영의 「분지」 독법에서 읽어낸 ‘비판적 자유주의’란 기실 안수길의 사상이기도 했음을 주장할 것이다.

IV. 『백야』와 『북간도』 4, 5부: 식민/포스트식민 시대의 주권권력과 인민

안수길은 분지 재판의 특별변호인으로 법정에 출두했던 1967년 5월 이후, 오래 미뤄두었던 『북간도』 4, 5부⁵⁰⁾ 작업에 몰두하기 위해 성북동 골짜기 약사암에서 여름 한 철을 보냈다.⁵¹⁾ 시기상 『북간도』 4, 5부가 분지사건의 흥분 속에서 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역으로 분지사건에 임하는 안수길의 자세는, 한 제자에게 “『북간도』의 어떤 주인공이 새롭게 법정에 서 있다는 느낌”을 불러 일으켰다.

선생님의 변호는 어느 때와는 달리 더듬거리는 일도 없었으며 조리있고 근엄하여 그 어떤 때보다도 신바람이 나 있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북간도'의 열이 '분지 재판'에서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선생님은 남정현의 작품을 변호하고 있는 입장이었지만, 실은 소설 '북간도'의 어떤 주인공이 새롭게 법정에 서 있다는 느낌이었을 만큼 선생님에게도 특별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눈치 챌 수 있었다."⁵²⁾

안수길의 1960년대가 4.19와 「분지」 사건 변호라는 두 사건 축 위에 놓여 있다면, 『백야』와 『북간도』는 이 시간대의 안수길 문학사상을 대표하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두 텍스트는 여러 모로 교차점을 갖는다. 우선 두 텍스트의 창작 시기가 상당 부분 겹쳐진다는 점이다. 안수길은 『북간도』 3부 발표 후 그 후속분 집필과 『백야』 연재를 병행하게 된 사정을 이렇게 밝혀 놓았다. 1963년 여름 “한창 『북간도』 나머지 부분을 전작하고 있는 도중”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백야』 연재를 의뢰받고, “신문연재면을 쓰는 동안 생활이 다소나마 보장되고 작품만 궤도에 오르

50) 『북간도』 3부가 1963년 1월에 발표되고, 4부와 5부를 묶은 『북간도』 하권이 1967년 10월에 출간되었으니, 근 5년만이었다. 1967년 봄부터 삼중당 출판사는 이미 『북간도』의 출간 소식을 알리는 광고를 게재했고, 7월에는 <라이언북스>라는 문고의 한 종으로 『북간도』 상권을 출간하기도 했다. 「잇딤 新作小說集 계획」, 『동아일보』, 1967.4.5; 「한국최초로 간행하는 읽히는 책의 상징! <라이언북스> 탄생!」, 『동아일보』, 1967.7.6; 「삼중당/인간박물관/북간도(상), 서울의밤/일본의 두얼굴 광고 삼중당간 라이언 북스」, 『경향신문』, 1967.7.17.

51) 안수길, 「『통로』 연재 무렵」, 『전집』 16, 194쪽.

52) 박용숙, 「가난 속에 꽃피운 산문정신」, 『전집』 16, 481쪽.

면 『북간도』는 함께 쓸 수 있”으리라는 계산으로 승낙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백야』가 단순히 ‘생활 보장’을 위해 쓰인 것은 아니다. 안수길은 해방 후의 여러 장편들 중에서도 『백야』를 『북간도』와 함께 대표작으로 여기며 특별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월남후 생계 유지를 위해 여러 신문소설들을 연재해왔던 안수길은, ‘딱딱한 의도’의 작품이 독자의 외면을 받으리라고 지레 짐작해왔다. 그런데 남한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한 『백야』가 독자들의 ‘예상 외의’ 격려와 호응을 받자, 그는 ‘놀람’과 ‘고마움’, 그리고 “용기백배되는 심정”을 토로한다. 이제 신문소설이라고 하여 구태여 ‘섹스 무드의 재미’에만 치중하지 않고, 좀더 “본격적인 작품”을 써볼 수 있겠다는 것이다.⁵³⁾ 구한말에서 해방 직후를 다룬 『북간도』, 해방 직후부터 4.19까지를 다룬 『백야』, 그리고 4.19 이후를 다룰 또 한 편의 장편을 묶어 “작자의 본격적인 대 삼부작을 구축”⁵⁴⁾하겠다는 기획을 밝히기도 했다.

무엇보다 작가는 일제 패망 직후에 끝난 『북간도』와 해방부터 시작되는 『백야』의 서사시간을 맞물려 놓음으로써, 식민지 시대와 포스트식민 시대를 아우르는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을 응시하고 성찰한다. 『백야』의 서사시간은 1953년 한국전쟁 종전과 환도(1953.9.16) 즈음에서 시작되어, 회상을 통해 1945년 해방부터 한국전쟁기로 소급하고, 서사의 진행에 따라 1960년 4.19 당일까지 이어진다. 1953년 전후로 각각 8년 정도의 시간을 아우르고 있는 셈이다. 한편 『북간도』는 1870년대에 간도에서 사잇섬 농사를 짓다가 이주한 이한복의 이야기로 출발하여 이장손, 이창윤, 이정수의 4대에 걸친 서사로 이어진다. 1~3부는 주로 창윤의 서사로 채워지고, 4~5부는 1917년에서 1945년 일제 패망 직후까지 정수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물론 두 텍스트 사이에는 단절도 있다. 『북간도』가 재만조선인이라는 이주민족의 역사를 그리고 있다면, 『백야』는 만주와 함흥에서 두 번의 탈

53) 안수길, 『『백야』』, 『안수길 전집 16: 수필집』, 글누림, 2011, 192쪽.

54) 안수길, 『『백야』의 붓을 놓고』, 『조선일보』, 1965.1.7.

향을 거쳐 남한이라는 국민국가에 귀속된 작가 자신의 삶의 경로를 따른다. 식민지기 '재만조선인'으로 통칭되었던 이들 중 만주에 잔류한 이들과 북한 국민으로 편입된 이들, 일본으로 귀화했거나 심지어 지상 어디에도 속할 자리를 얻지 못한 채 죽어간 이들까지, 다양한 삶의 경로들은 일단 『백야』의 서사에서 배제된다. 대신에 『백야』는 청계천 상인 편중수를 중심으로 한 월남전재민들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작가가 이들의 경험을 통해 응시하는 역사는, 식민지 조선인들이 오래 꿈꿔왔던 해방과 국민국가 수립으로 행복하게 종결되지 않는다. 식민지기 만주에서 충돌하던 주권권력들의 폭력은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남북한 정권에서 형태를 바꿔 반복되었고, 텍스트의 종결부인 4.19까지 이어진다. 식민과 포스트식민 시대의 이 지속과 반복을 작가는 밤의 상징으로 표현한다.⁵⁵⁾

- ① 새 아침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쑥한 해가 떠올 것인가. 흐리터분한 날씨에 끄물끄물 해가 떠오를 것인가? 그러나 정수는 밤이 다하고 새벽이 오고 해가 뜰 것이 그저 좋다고만 생각하려고 했다. (『북간도』, 687)
- ② 해방 후 오늘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로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 박명 속에 살아 온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백야는 해방 이래, 우리의 현실을 상징하는 어둠도 될 것입니다. 한편 밤으로서의 백야는 지극히 화려하고 로맨틱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정열의 보금자리요, 애인들의 소유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 소설에서 이상 두 가지 뜻의 백야 속에 흥망성쇠하는 몇몇 남녀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해서, 어김없는 낮으로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백야』, 190)

①은 『북간도』 마지막에서 해방을 맞는 정수의 상념이다. 『북간도』는 이주민족인 재만조선인이 겪은 국가 안팎의 온갖 폭력들에 대한 보고서다.⁵⁶⁾ 청과 러시아와 일본, 이후에는 중국국민당 정권, 동북 군벌, 일본

55) 『북간도』는 『안수길전집』 5권, 『백야』는 16권에 수록되었다. 본문에 각각 쪽수만 밝힌다.

56) 이 단락의 『북간도』 분석은 필자의 다음 논문을 요약했다. 「이주민족 정체성의 산종과 안전의 정치적 아포리아 - 안수길의 『북간도』를 중심으로」, 『만주연구』 32, 만주학회,

제국, 공산계릴라 세력이 빈번히 충돌하던 분쟁지역 만주에서, 재만조선인은 어디에도 온전한 국민으로 속하지 못한 채 국가권력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점차 난민화 되어갔다. 이들이 국가들 사이에서 도모했던 ‘자치’의 시도는 거듭 좌절되었고, 특정 국가의 국민이 됨으로써 삶의 안전과 보호를 추구하는 길 역시 가로막혔다. 『북간도』 4, 5부는 경쟁하는 통치권력들 사이에서 재만조선인의 정체성이 분열되고 심지어 내전상태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주인공인 정수는 흥범도 휘하에서 독립군으로 활동하다가, 도피 생활 중 중국인으로 위장하여 중국 국민교육에 종사하고, 일제에 자수하여 감옥살이를 하고, 출옥후 조선인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일제와 중국 양쪽의 압력에 시달리는 인물이다. 그는 정세에 따라 동요를 거듭하지만, 마지막에는 다시 청림교사건이라는 민족주의 운동에 가담한다. 『북간도』 서사가 일제의 패망으로 종결되면서, 정수가 이후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열린 결말로 남는다. 피식민자, 비국민인 이주자, 혹은 난민으로서 국가 안팎의 폭력 대상이 되었던 이들은 이제 자유롭게 평등한 주권적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인용문 ①은 “흐리터분한 날씨에 깎물 깎물” 떠오르는 해처럼, 해방 이후에도 불안한 정세가 이어지리라는 정수의 불길한 예감을 보여준다. 일단은 밤이 다하고 해가 뜨는 것, 일제가 패망하고 해방을 맞는 것을 “그저 좋다고만 생각”하면서도, 마지막 장의 제목처럼 해방 「그 뒤에 올 것」은 미지로 남겨진다.

②에서 작가는 『백야』가 “해방 이래, 우리의 현실”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박명” 상태였음을 상징한다며, 작품을 통해 진정한 “낮으로의 길”을 모색했다고 밝힌다. 해방이 되었음에도 ‘밤’이 지속되는 까닭은 무엇이며, 진정한 ‘낮’으로의 길은 무엇일까? 「그 뒤에 온 것」이라는 제목이 붙은 『백야』 11장을 「그 뒤에 올 것」이라는 『북간도』의 마지막 장과 연결해보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백야』 10장은 인민군 점령하의 서울을, 11장은 9.28 수복후의 서울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 뒤에 온 것’의 일차적 함의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통치권력이 바뀐 시점을 의미한

다. '자유'를 찾아 월남한 편종수 가족은 국군의 한강 다리 폭파로 어쩔 수 없이 북한 점령 하의 서울에 잔류하며 온갖 고초를 겪는다. 인민재판과 즉결 처분에 따른 총살이 횡행하던 시절이기에 월남민인 편종수는 반동분자로 몰릴까봐 더욱 몸을 사려야 했고, 열혈 우익청년이던 사촌동생 창수는 북한 의용군에 끌려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탈출하기도 했다(10장). 그러나 9.28 수복 후 편종수 가족을 포함한 '잔류파'는 남한정권에 의해 대북 협력을 빌미로 처벌받고, '빨갱이'로 몰려 처형되고, 국민자격의 심문과 '시민증'을 통한 신원증명을 요구받으며 온갖 권리상의 차별을 받게 된다(11장).⁵⁷⁾ 요컨대, 북한의 지배 '그 뒤에 온 것'이라는 장은 남북한의 정권이 바뀌었을 뿐 주권권력의 폭력과 지배 메커니즘은 동일하다는 비판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북간도』의 해방 「그 뒤에 올 것」과 『백야』 전체가 그려내는 해방 「그 뒤에 온 것」 사이에서도 반복된다. 만주에서 경쟁하는 주권권력들이 일방적으로 국민과 비국민, 동지와 적을 구분하고 개개인들을 폭력의 대상으로 배제하거나 폭력의 행위자로 불러세웠던 사태는, 해방후 분단과 한국전쟁이라는 내전상태에서 되풀이되었다. “주권은 항상 국경 위에서 설립되고 무엇보다도 국경의 부과로 실행”⁵⁸⁾된다는 발리바르의 말처럼, 『백야』의 인물들에게 주권적 폭력은 무엇보다 일방적인 '국경'의

57) 한국전쟁기 시민권과 신원증명 장치에 대해서는 강용훈의 상기 논문, 박완서 소설을 대상으로 한 차미령의 흥미로운 선행논문과 함께 역사학계의 연구들도 있기에, 이 글에서는 가급적 간략히 다룬다. 김영미, 「해방 이후 주민등록제도의 변천과 그 성격」, 『한국사연구』 136, 한국사연구회, 2007; 차미령, 「한국전쟁과 신원증명 장치의 기원: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주권의 문제」, 『구보학보』 18, 구보학회 2018. 박완서가 1990년대 소설들에서 형상화한 한국전쟁기 신원장치와 주권권력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이 안수길의 『백야』에서 선구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할 만하다. 김영미는 9.28 수복후 잔류파에 대한 사상 검열과 함께 이들을 간첩과 양민으로 구분하려는 목적으로 시민증이 발급되었기에, 이들은 복잡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시민증 발급에 애썼음을 밝혔다. 이런 사정은 『백야』의 다음 장면에서도 선명히 드러난다. “이제사, 대한민국 백성이 됐대 말이요.” 문형태가 걸걸한 목소리로 맞아 주었다. “뉘요? 언젠 아니었고?” “시민권 없는 사람이 이 나라 백성일 수 있어요?” “아하, 시민증을 받은 모양이로군.” “말마시오. 겨우 오늘에야...” (『백야』, 437쪽)

58) 발리바르, 『우리, 유럽의 시민들?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재발명』, 진태원 옮김, 후마니타스, 2010, 329쪽.

부과로 경험되었다. 해방과 함께 남북한에 미소군정이 들어서고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삼팔선은 그대로 “국경 아닌 국경”(『백야』, 44)으로 굳어졌다. 대부분의 조선인에게 남북한의 국적은 정치적 이념에 따른 주체적인 선택이 아니라 삼팔선이라는 ‘국경’을 기준으로 고향, 호적, 거주지에 따라 일방적으로 부과되었다.⁵⁹⁾ 개인들이 국가권력(당시로서는 미소군정과 그 휘하에서 치안과 안보를 담당했던 남북의 통치 행위자들의) 금지를 위반하고 삼팔선이라는 ‘경계’를 넘는 것은 점차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 되었다. 편중수가 삼팔선을 넘는 과정을 회고하는 장면은 ‘국경’에서 작동하는 주권권력의 폭력을 가감없이 드러낸다. 북한 내무서는 삼팔선 국경 근처인 연천역에 내린 이들을 검속하고 “역에서 압수한 인민증에 적힌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판 방에 데리고 가서 심사”(46)한다. 그들 대부분은 인민증을 압수당한 채 북한의 거주지로 송환되고, 조만식의 조선민주당 당원이었던 천금주의 남편처럼 사상이 불순한 자는 탄광으로 끌려가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다.

1945년 무렵 삼팔선이라는 ‘국경’ 부근에서 일어났던 주권권력의 폭력은 한국전쟁 중 급격한 ‘전선’(戰線)의 진퇴와 더불어 한반도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반복되었다. 전선이 이동하고 통치권력이 거듭 뒤바뀌므로써, 그저 한 자리에 머물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국경’에 놓이게 되었다. “국경들의 효력은 한 인민의 구체적 실존 속에서 친구와 적의 경계선으로 실제로 작동”⁶⁰⁾하는 바, 일상적 삶의 장소가 국경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이웃한 개개인은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죽게 만드는 주권권력의 행위자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우익청년회 활동을 하던 편중수는 북한 점령기간 중 은신해 있다가 옛 동지의 배신으로 인민군에게 끌려갔다. 수복 후 이번에는 편중수의 아내가 인민군이 벌인 강간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치안대에 끌려가 목숨을 잃을 뻔했다. 소설은 북한 점령

59) 서호철, 「국민/민족 상상과 시민권의 차질, 차질로서의 자기정체성」, 『한국문화』 41, 2008, 102쪽.

60) 발리바르, 앞의 책, 329쪽.

하의 협력자들을 색출하고 처벌하는 일이 경찰이나 군인 같은 공적 권력이 아니라 “순전히 주민들의 자치조직인 치안대에서”(422) 행해지고 있음을 그려낸다.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는 동지와 적의 편가르기가 평범한 아낙네들 사이에서조차 ‘일상적으로’ 벌어졌다.

동회에서 직장에서 단체에서 심사가 마치 열풍같이 휘몰아치고 있는 사이 동네 아낙네들도 공연히 그 동안의 협력의 정도를 따지지 않고는 손해를 보는 듯한 심정이 되었다고 할까? 누구 엄마는 여맹에 몇 번 나갔고 누구는 앞장을 서서 남을 못 견디게 굴었고 어느 집에서는 배급을 탔고 이런 이야기들을 입을 비쪽이면서 주고받고 했다. 그러다가 그것은 또 무슨 열병이나 되는 듯이 “그런 아낙네와 어떻게 한 동네서 살 수 있어?” “그 동안 겪은 고생을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데 그런 여편넌 그대로 두어...” (『백야』, 431쪽)

마을이라는 삶의 장소들이 ‘국경화’ 되면서, 잠재적 적인 이웃에게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이웃을 적으로 돌리는 예방적 폭력으로 선 불리 전화되었다. 소설은 이 폭력의 악순환을 가속화시키는 이들(부잣집 첩, 오씨, 425쪽)과 여기에 휘말려 드는 이들(동네아낙네들, 431쪽), 그리고 드물게나마 이를 억제하는 이들을 함께 그려낸다. 편종수의 부인이 자신을 북한부역자로 모함한 박과부와 대립할 때 찾아간 반장노인은, 대립을 억제하는 쪽이다.

“그랬더니 반장이 또 허허 웃는 거예요. 그거 캐서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지금 모두들 허기져서 머리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돈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면 마찬가지로 돈 사람이 되는 것 아니냐고 날더러 잠자고 있으라는 거예요.” (432)

노인은 이웃과 친지가 하루아침에 적으로 갈라져 서로를 죽게 만드는 상황을 “모두들 허기져서 머리가 돌고” 있다고 진단하며, 그 싸움에 동참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그의 충고 덕분에 편종수의 아내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나중에 박과부의 오랍동생이 북한 의용군에 자원한 일로 남한 경

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박과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 좋게 대답해’ 준다. “반장 영감 말따나” 그제 다 “혼란 통에 모두 머리가 돈 까닭에 빚어진 일”(452)이라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 일을 듣고 빙그레 웃은 편중수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한다. 서로를 향한 폭력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는 편중수의 ‘병역기피’라는 모티프를 통해 가장 ‘불온하게’ 표출된다.

... 창수가 병역을 기피해, 머리도 깎지 않고 털수룩한 채 숨어 다니고 있는 것이었다. 이것이 창수의 7년 동안의 변모였다. 창수를 변모케 만든 7년 동안 - 건국, 사변, 수복, 후퇴, 피난생활, 정치파동, 휴전협정, 환도 등등 남한에는 역사적인 격동과 변천이 뒤를 이었다. 그럴 때마다 감격성이 풍부한 창수의 성격은 직접 간접 그 격동과 변천에 휩쓸려 들었다. 지나친 행동으로 나가기도 했고 도리어 육체적인 괴로움을 받고 했다. 정신상의 상처도 입었고...

“차라리 군대에 갔다 오는 게 좋지 않으나?”

... “사병으로요?”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사병으로 입대하라고 하십니까?”

국민방위군사건 전후의 사정을 이야기함을 편중수는 대뜸 알 수 있었다.

... “사병은 싫다? 그러면 사관학교에라도 들어가 장교가 되든지...”

... “장교? 군인은 일체 싫어요.” (133-134)

창수가 병역을 기피한 채 도피생활을 이어가는 이유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지만 해방과 건국, 전쟁과 휴전까지 7, 8년간 이어지는 역사와 삶의 서사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함흥 반공학생의거 주모자로 월남후에도 누구보다 반공에 앞장섰던 그는, 북한 점령하의 서울에서 북한 의용군으로 끌려갔다가 탈주하고, 이번에는 청년회 간부로서 복진하는 국군을 따라갔다가 패퇴한 이후 눈에 띄게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 1.4 후퇴 때는 피난 열차에서 북한 출신에 서울 ‘잔류파’이고 ‘제2국민병 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상과 정체를 의심받고 경관에게 끌려갈 뻔했다. 그러나 소설은 그의 병역기피가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은 아님을 시사한다. 인민군에게 자신의 은신처를 알린 옛 동료의 배신에 분노했던 창수는, 그

역시 결국 인민군에게 죽임을 당한 것을 알고 허탈해한다. 창수가 후일 유동철과 쉽게 의기투합한 이유는 인민군의 “집뒤집에 개처럼 잡혀” 강제 징집되고 유엔군 포로가 되어 “회슬레를 당한” 그의 의분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남한 정권에 강제징집당한 ‘국민방위군’ 수만 명이 고위층의 횡령과 부패로 보급이 끊겨 굶어죽고 얼어죽은 사건은 그가 “군인은 일체 싫어요”라는 환멸을 갖게 된 결정적 계기로 보인다.

남북한 주권권력들 사이에 끼어 북한의용군과 국군으로 번갈아 동원되고 빨갱이와 반동으로 거듭 심문당했던 창수의 모습은, 만주의 경쟁하는 주권권력들 틈바구니에서 시달리던 정수의 모습과 겹쳐진다. 『북간도』의 정수가 재만조선인중 누군가는 일본군이 되고 누군가는 공산주의 게릴라가 되어 서로를 죽이는 상황에서 양측의 포섭을 뿌리치고 누구도 죽이지 않기를 선택한 것처럼, 창수 역시 군인이 되기를 거부함으로써 적을 죽이라는 주권권력의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한다.

『백야』의 창수 이야기를 「갱생기」라는 작품과 비교해 보면 그 미묘한 울림이 더욱 배가된다. 「갱생기」는 원래 1952년에 쓰였고 1962년 육군본부에서 발행한 『전쟁문학집』에도 실려있어 얼핏 보면 반공주의와 애국주의를 고취하는 소설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안수길은 이 소설을 1965년에 발간된 단편집 『벼』에 「IRAQ에서 온 편지」 등과 함께 수록했다는 점은 이런 피상적인 독해에 저항한다. 우선 작품 전체가 아이러니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소설은 상호와 현철이라는 두 친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상호는 북한점령기 서울에서 의용군에 강제징집되었다가 탈출한 인물이다. 그는 애인 지애의 여맹활동에 심한 배신감을 느꼈으나, 나중에 그녀가 오빠를 지키기 위해 공산당에 위장 가입하고 결국 자살했음을 알게 되고 깊은 실의에 빠져 방황한다. 이때 현철은 “지애를 죽인 원수 공산 괴뢰를 박멸하는 것이 자네가 구원을 받고 지애의 죽은 영혼이 살 수 있고 고난에 사무친 3천만이 구원받는 길”⁶¹⁾이라고 강변함으로써, 상호가 “늠름한 대한민국 군인”으로 갱생하도록 이끌었다. 그러나

61) 안수길, 「갱생기」, 『전집』 1권, 511쪽.

작품 결말부에서 현철은 자신의 신념에 찬 주장들과는 달리 실제로는 “우리의 현실이 진절머리”(521) 나서 미국유학으로 도피하기만 꿈꿔왔음을 고백한다. 상호의 반공적 애국심을 고취했던 현철이 내적 공허와 회의에 빠진 인물이라는 아이러니한 결말은 현철이 강변한 국가 이데올로기 자체를 상대화시킨다. 물론 작품은 현철이 ‘자신의 출세’에 급급했던 이기심을 반성하고 이번에는 상호가 현철을 갱생시키겠다는 다짐으로 봉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영이 예리하게 분석한 것처럼⁶²⁾, 현실에 대한 현철의 근본적 회의는 안수길 소설에 면면한 ‘망명의식’의 계보를 이루고 있다.

「갱생기」는 국가 이데올로기의 호명에 응하여 적을 죽이는 싸움에 앞장섰던 이들이 겪는 좀 더 깊은 회의감도 드러낸다. 상호의 부하인 김진우는 의용군에 자원한 매부 박종수에 대한 원한을 품고, 그를 전투에서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는 다짐을 늘상 입에 달고 있어 ‘용서 없다, 박종수’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그런데 김진우가 치열한 전투 끝에 전사한 날 북한군 포로로 잡혀온 이가 바로 박종수였다. 죽은 김진우를 대신해 적개심에 불탔던 전우들은 박종수가 김진우의 죽음 소식을 듣고 “흙투성이 된 초라한” 몸에 “기운이 다 빠”지고 “얼이 도망간” 듯한 모습을 보이자 “동요”(518)한다.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비록 ‘현실의 적’으로 마주하고 있지만, 그 적 역시 나와 같은 사람이며, 반드시 ‘박멸’하거나 ‘죽여야’ 할 ‘절대적 적’이 아님을 본 까닭이다.

죽여야 할 적에게서 인간의 ‘얼굴’을 본 자의 동요는 이처럼 안수길의 전쟁문학에조차 흔적을 남겼다. 『백야』의 창수와 『북간도』의 정수가 선택한 ‘죽이지 않겠다’라는 선택은 이 근원적 동요에서 비롯된다. 어쩌면 그 ‘반시대성’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이러한 면모는, 작가 자신이 두 차례의 탈향 경험을 통해 국가를 상대화했던 망명의식의 소산이었다. 나아가 안수길이 「분지」 사건 변론에서 밝혔던 것처럼, 문학이란

62) 한수영, 「내부 망명자의 고독: 안수길 후기소설에 나타난 ‘망명의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61, 한국문학회, 2012, 263-302쪽.

언제나 자신이 속한 현실과 불화하며 더 나은 이상을 꿈꾸는 ‘저항문학’이라는 신념의 산물이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백야』의 4.19 재현을 고찰하면, 안수길 문학사상의 성취와 한계가 더 오롯이 드러난다. 『생각하는 갈대』에서 아직 혼란과 주저의 단계에 머물러 있던 4.19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백야』에 와서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다. 『백야』는 삼팔선이라는 ‘국경’의 일방적 부패와 국민 자격의 심문, 국가권력에 의한 적과 동지의 분할과 강제적인 전쟁 동원에 이어, 14~18장에서 자유당의 부패와 독재를 길게 다룸으로써, 인민의 항거인 4.19의 역사적 당위성을 부각시킨다. 무엇보다 소설은 4.19의 국가 폭력으로 인해, 북한과 남한을 각기 억압과 자유의 체제로 대비시켜왔던 남한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이분법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밖에서는 또 데모대의 고함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편중수는 문득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었다. 창수를 보았다. 창수가 월남 전 고향에서 학생의거 사건에 가담했을 때의 일이었다....

“형님.” “.....”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왜 마구 쏘니까? 왜 영호 같은 애 죽입니까?”

편중수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가겠습니다.” 창수는 울컥 치미는 듯하더니 나가버렸다. (『백야』, 782)

한때 병역기피자였으나 지금은 시장 상인이자 결혼한 가장으로 착실한 생활을 이어가던 편중수는 가족처럼 지내던 대학생 영호가 4.19 시위에 나섰다가 경찰의 총을 맞자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진다. 4.19 학생의거를 보며 자신이 북한에서 주동자로 참여했던 함흥학생의거를 떠올렸기 때문이다. 1946년 3월 함흥시 학생과 시민이 소련군정 및 공산 당국에 저항했던 이 사건은 단지 ‘반공’이라는 이념을 위한 저항이 아니었다. 피식민자로서 ‘주권’을 빼앗겼던 인민이 소련군정이라는 새로운 주권자에 맞서 스스로의 정치적 삶을 결정할 권리를 주장했던 봉기였다. 이 봉기가 권력의 탄압으로 좌절되었을 때 창수가 택한 길이 월남이었다. 남한에는 스스

로의 정치적 삶을 결정할 인민의 주권과 자유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수가 한국전쟁이라는 내전의 상황에서 경험한 주권권력의 폭력은 4.19의 시위 탄압 현장에서 반복된다. 시위대를 향한 경찰의 총격과 이러한 예외상태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계엄령은, 민주주의라는 정체에서 조차 주권이 인민들 너머, 정권을 장악한 권력자에 의해 독재적으로 행사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작가가 『궤폐입은 양복바지』에서 날카롭게 통찰했듯, 전근대 봉건왕조든 만주의 식민권력이든 근대의 민주정이든, 구조적으로 동일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백야』는 해방 이래 차곡차곡 쌓여온 사회적 모순과 함께 마산 항쟁부터 4.19까지 전국적인 시위 확산 과정을 폭넓게 묘사함으로써, 주권권력의 폭력을 드러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민의 민주주의적 역량을 그려낼 수 있었다. 물론 소설이 그려내는 4.19는 여전히 반공의 이념에 제약되고(“민주주의 바로잡아 공산주의 타도하자!”) 분단체제 하에서 ‘이적’(“데모가 이적이냐? 폭정이 이적이냐?”)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했으며, 학생의 질서있는 평화시위가 아닌 일반시민의 폭력 시위와 ‘무정부’ 상태에 공포를 드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이 단순히 주권적 폭력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를 주권적 주체로 자각하고 봉기하는 과정을 설득력있게 그려낸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인공 편종수는 자본가이자 자유당 국회의원이 된 친구 문형태와 시위 와중에 총을 맞고 의식불명이 된 영호 사이에서, 아직 역사의 방향도 삶의 행로도 가늠하지 못한다. 4.19와 5.16, 자유와 반공, 기성질서로의 편입과 저항, 주권권력의 폭력에 대한 비판과 봉기하는 인민의 폭력에 대한 공포 사이에서 주저하는 『생각하는 갈대』의 주제는, 기성세대인 편종수라는 인물에게 투영된다. 반면 병원을 뛰쳐나간 편창수는 편종수와는 다른 길을 갈 것처럼 보인다. 주권권력의 명령(죽여라!)을 병역기피로 피해갔던 그가, 이제 반공으로서의 자유를 넘어 정권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깨닫고, 주권적 폭력의 희생물이 아닌 인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주체로 성장해갈 수 있을까? 4.19의 밤에서 멈춰버린 서사는 그 이후를 열린 결말로 남겨 놓는다. “멀고 가까운 총소

리”와 “데모대의 아우성”이 그치지 않는 거리를 바라보는 편중수처럼, 작가가 역시 ‘이 밤이 새고 내일 아침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품고 있었을 것이다.

V. 나가며 - 민주주의와 인민주권의 역설을 넘어서

『백야』 이후 안수길 장편소설에서 4.19는 다시 본격적으로 재현되지 않는다. 『내일은 풍우』⁶³⁾에서는 등장인물들이 4.19 기념탑 앞에서 만난다는 설정 속에 짧게 등장할 뿐이다. 『구름의 다리들』⁶⁴⁾에서는 과거 일제 신궁이 있던 자리에 4.19때에는 이박사의 맘모스 동상이 서 있었다는 언급을 통해 식민과 포스트식민 역사의 반복을 희미하게 암시한다. 안수길이 『북간도』, 『백야』에 이어 4.19부터 현재까지를 다루는 작품을 쓰겠다던 3부작 기획도 이뤄지지 못했다. 군사독재 정권은 1960, 70년대 내내 건재했고, 작가가 『백야』를 통해 모색했던 “어김없는 낮으로의 길”⁶⁵⁾을 아직 찾지 못한 까닭이겠다. 대신 그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구한말부터 1905년까지를 그린 『통로』(『현대문학』, 1968.11- 1969.11)와 그 이후 1920년대 초까지를 담은 『성천강』(『신동아』, 1971.1-1974.4) 연작을 발표한다. 윤원구 노인의 회고록 형식으로 이뤄진 이 연작은, 구한말부터 3.1 운동 이후까지 근대의 정치적 인민이 탄생하는 과정을 그려낸다. 식민지로 향해가던 시기의 정치는 민족주의로 수렴되어 갔으나, 그 근본에 있는 충동은 인민의 자기-통치, 곧 민주주의의 열망이었다. 『통로』-『성천강』-『북간도』-『백야』로 이어지는 소설의 시간대는 인민의 민주주의 열망이 싹트고, 짓밟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부풀어 올라 분출하고, 다시 굴절되었던 역사를 파노라마처럼 그려낸다.

63) 안수길, 『내일은 풍우』(『한국일보』, 1965.7.23-1966.6.24), 『전집』 10, 325쪽.

64) 안수길, 『구름의 다리들』(『전북일보』, 1969.8.14-1970.7.1), 『전집』 10, 742쪽.

65) 안수길, 『백야』, 『전집』 16, 190쪽.

소설이 채 풀지 못한 채 남겨놓은 질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보인다. 민주주의 하에서도 왜 인민은 피지배자에 머물며 소수가 주권적 권력을 독점하는가. 심지어 혁명으로 기존의 권력을 타도하는 데 성공한 인민은 자신들의 주권을 왜 또 다른 권력자에게 양도하는가. 인민 주권에 내재한 모순, 즉 주권은 최상의 단일한 의지이지만 인민은 언제나 차이들로 분열된 다중체로만 존재한다는 모순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 다중으로서의 인민의 주권이 국가라는 리바이어던으로 회수되거나 서로를 향해 무제한적 폭력을 행사하는 적대로 귀결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조화로운 민주주의적 정치체를 이룰 수 있을까. 안수길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근대의 정치적 주체로서의 인민의 탄생을 되짚어 본 것은, 어쩌면 이런 질문들을 품은 채 미지의 미래, 도래할 민주주의를 부르는 작업이었던 것이 아닐까.

참고문헌

-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부산일보』 등
- 강용훈, 「1960년대 안수길의 신문 연재소설과 4.19 혁명 전후 서울의 문화적 재현 양상」, 『어문논집』 96, 민족어문학회, 2022, 141-174쪽.
- _____, 「1960년대 초반 안수길 신문연재소설의 4.19 표상과 피난민의 시민권: 『생각하는 갈대』(1961-62)와 『백야』(1963-64)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2,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9, 35-68쪽.
- 공임순, 「박종화와 김동리의 자리, “반탁운동의 후예들”과 한국의 우파 문단」, 『사학연구』 121, 한국사학회, 2016, 41-79쪽.
- 김건우, 「「분지」를 읽는 몇 가지 독법 - 남정현의 소설 「분지」와 1960년대 중반의 이데올로기들에 대하여」, 『상허학보』 31, 상허학회, 2011, 253-282쪽.
- 김미란, 「1960년대 소설과 민족/국가의 경계를 사유하는 법」, 『한국학논집』 51,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3, 179-215쪽.
- 김성수, 「1960년대 문학에 나타난 문화정책의 지배이념과 저항이념의 헤게모니 - 남정현 「분지」 필화사건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34, 민족문화사학회, 2007, 86-113쪽.
- 김영미, 「해방 이후 주민등록제도의 변천과 그 성격」, 『한국사연구』 136, 한국사연구회, 2007, 287-323쪽.
- 김영희, 『안수길 소설의 근대성 연구』, 국학자료원, 2009.
- 김윤식, 『안수길연구』, 정음사, 1986.
- 김종욱, 「역사의 망각과 민족의 상상」, 『국제어문』 30, 국제어문학회, 2004, 275-303쪽.
- 김주리, 「4.19의 세대론과 안수길 소설 속 예외상태의 주제: 『백야』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76, 한국문학연구학회, 2022, 243-281쪽.
- 김준현, 『전후 문학장의 형성과 문예지』, 고려대 국문과 박사논문, 2008.
- 김철, 「한국문학이 그린 동그스 얼굴 (1) - 「분지」와 「똥바다」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65, 상허학회, 2022, 449-517쪽.
- 발리바르, 에티엔, 『우리, 유럽의 시민들?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재발명』, 진태원 옮김, 후마니타스, 2010.
- 서호철, 「국민/민족 상상과 시민권의 차질, 차질로서의 자기정체성」, 『한국문화』 41, 서울대 규장각, 2008, 85-112쪽.
- 안수길 외, 『남정현문학전집 3: 연구자료 및 논문』, 국학자료원, 2002.

- 안수길, 『안수길전집』 1~16, 글누림, 2011.
- 오태호, 「1950년대 『자유문학』의 지향과 지식인 소설의 상관성 고찰 - 최인훈의 「그레이트라브 전말기」와 「라울전」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40, 한국근대문학회, 2019, 75-104쪽.
- 이해영, 「안수길의 해방전후 '만주' 서사에 나타난 민족인식: 타민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50, 한민족문화학회, 2015, 7-38쪽.
- _____, 「일제 시기 간도 이주와 그 형상화의 두 양상: 안수길의 『북간도』와 리근전의 『고난의 년대』」, 『한국학연구』 21,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09, 7-32쪽.
- 임유경, 「불가능한 명량, 그 슬픔의 기원: 1960년대 안수길론」, 『현대문학의 연구』 49,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175-217쪽.
- 차미령, 「한국전쟁과 신원증명 장치의 기원: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주권의 문제」, 『구보학보』 18, 구보학회, 2018, 449-480쪽.
- 최경호, 『安壽吉 研究 : 失郷時代の 민족문화』, 형실, 1994.
- 한기형, 「역사의 소설화와 리얼리즘: 안수길 장편소설 『북간도』 분석」, 『한국전후문학연구』, 조건상 편, 성균관대 출판부, 2003.
- 한수영, 「내부 망명자의 고독: 안수길 후기소설에 나타난 '망명의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61, 한국문학회, 2012, 263-302쪽.
- 함석헌,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6.25 싸움이 주는 역사적 교훈」, 『사상계』 1958.8.

Abstract

**Soo-kil Ahn's 1960s Literary Thoughts and Writing
Colonial, Postcolonial and Decolonial History –
Focusing on *Thinking Reed*, *Whitenight* and
Bukgando's part 4 & 5**

Youn, Young-shil (Soongsi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By analyzing Soo-kil Ahn's literary thought, this study attempts to present an integrated interpretation for his novels of the 1960s. He raised a critical voice against the dictatorship of the Liberal Party before 4.19. However, *Thinking Reed* shows that the author was also hesitating between freedom and anti-communism, criticism of dictatorial power and fear of anarchic state. However, Soo-kil Ahn deepened his critical liberalism by witnessing and resisting the suppression of the press and freedom of artistic creativity. Especially, through his defense of "Bunji," whose author was indicted on aiding the enemy, North Korea, he could establish his own perspective of resistance literature.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1960s was reflected on his two representative novels in 1960s, *Whitenight* and *Bukgando's* parts 4 and 5. Two novels share common symbols (day and night) and critical theme of sovereign violence, and resistant characters who refused sovereign power's order to 'kill the enemy'. These novels, connecting the colonial and the post-colonial period, led to the prospect that true decolonization and democracy could be achieved through the political subjectivation of the people.

Keywords: Su-gil An, sovereign power, people's sovereignty, civil war, democracy, 4.19, Bunji Incident, *Bukgando*, *White Night*, *Thinking Reed*

논문 투고일: 2023년 09월 17일
심사 완료일: 2023년 10월 17일
계재 확정일: 2023년 10월 22일

